

교과서를 통해 본 세네갈의 프랑스어 교육 문제⁶⁰⁾

심 지 영
(서울대학교)

서론

1. 세네갈에서 프랑스어의 위치
2. 세네갈 교과서 프로그램의 문제와 특징
3. 교육과정에서 민족언어의 중요성

결론

서론

프랑스어의 위상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프랑스의 오렌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프랑스어와 프랑스어 문학 교육이라는 것은 언어사회학적, 역사적, 정치적

60) 본 논문은 2011년 10월 8일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에서 ‘프랑스어 교과서를 통해 본 세네갈의 문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인 면에서 복잡한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민족 언어의 수는 수십 가지가 넘지만 프랑스어가 공용어, 교육의 언어, 행정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프랑스어로만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은 필연적으로 모순을 내포한다. 즉, 하나의 공식 언어를 통해 국가적 통합을 이루는 공화국의 공교육이 갖는 목표와 민족 문화의 가치를 고양하는 아프리카적 문화 정체성을 위한 교육이라는 교육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세네갈의 경우를 통해서,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 국가들이 겪는 프랑스어와 프랑스어 문학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대서양에 면해있는 세네갈은 역사적으로 서아프리카의 첫 프랑스의 식민지로, 1659년 생루이 Saint-Louis 라는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식민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 다른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세네갈은 프랑스의 강력한 동화정책의 영향을 받아 정치, 경제 시스템은 물론 문화와 언어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1960년 독립이후에도 프랑스어 사용을 옹호했던 생고르 Senghor 초대 대통령의 정책과 프랑코포니 연합(OIF)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압두 디우프 Abdou Diouf 전 대통령 등의 프랑스어 옹호 정책으로 현재까지 세네갈은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듯하다. 세네갈에서는 대부분의 인구가 일상생활에서 월로프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교육이 프랑스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교육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특별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또한 매우 복잡하게 나타난다. 교과서와 교과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네갈 프랑스어 교육의 문제점을 통해, 두 언어, 혹은 다언어의 상황에 놓인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들

의 현실을 살펴보고 교육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세네갈에서 프랑스어의 위치

모든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그러했듯이, 세네갈 역시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한 식민지배 정책의 일환으로 프랑스어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 이 언어 정책은 식민 지배국의 수많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할 수 없었던 프랑스의 동화정책의 의지를 반영한다. 프랑스 본토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제국주의적 정책으로, 해외 식민지의 언어는 물론 프랑스 본토의 브르통, 알자스어, 옥씨땅 등 모든 지역 언어들은 폄하되고 부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 언어들을 ‘사투리’로 취급하여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은 열등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식민 지배국가에서는 프랑스어가 영속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언어정책들이 고안되고 연구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모노Monod 와 다벤느Davesne 등과 같은 식민지에 파견된 프랑스 연구자들의 논문은 아프리카 학생들이 프랑스 본토의 학생들처럼 프랑스어를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적합한 프랑스어 교수법을 찾기 위해 매우 고심했음을 알 수 있다.¹⁾

1) Théodore Monod 는 1938년 다카르에 설립된 Institut National de l'Afrique Noire(IFAN) 연구소장을 지냈고, 아프리카 연구에 생애를 바치며 프랑스어-윌로프어 교재를 비롯하여 세네갈에 대한 수많은 논문과 보고서를 남겼다. André Davesne의 경우, 20세기 초 프랑스 식민지 아프리카에서 어떤 전략의 교육이 필요한지를 밝히는 다음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André Davesne, <L'adaptation de l'enseignement aux colonies>, *Rapports et comptes rendus du Congrès International de l'Enseignement dans la Colonies et les Pays d'Outre-Mer*, 25-29 septembre 1931. Préface de Crouzet, Paris, 1932. 1817년부터 1960년까지 프랑스가 세네갈에 어떠한

독립 이후에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프랑스어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언어교육 정책을 펴기 위해 경주해왔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독립국가로서 합당한 주체적 언어교육 정책을 내세우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프랑스어권 아프리카가 직면한 문제를 요약하자면, (1) 지나치게 많은 수의 ‘민족 언어’(*lingues nationales*)²⁾ (2) 구술문화 중심의 문화로 인한 민족어 문자의 부재 혹은 문법의 부재 (3) 공공 교육이 추구하는 통합정책 (4) 정부의 주도적인 의지 결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민족 분포가 다양하면서도 그 민족들의 인구비율이 비슷한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와 같은 나라의 경우, 60여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 이 중 구어로만 사용되면서 코드화되어 기록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언어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몇 개의 언어를 사용하기로 선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³⁾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공교육의 목표는 최소한 하나의 언어로 국가의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학생을 교육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미 행정의 언어이자 교육의 언어인 프랑스어를 포기하는 일은 어려웠다. 세네갈의 경우 월로프어(*le wolof*)를 인구의 대부분이 사용하기 때문에 프

프랑스어 정책을 펼쳤는가에 대해서는 Bouche Denise의 다음 연구를 참고한다. Bouche Denise, <Autrefois, notre pays s'appelait la Gaule...Remarques sur l'adaptation de l'enseignement au Sénégal de 1817 à 1960>. *Cahiers d'études africaines*. Vol. 8 N° 29. p.110-122.

2) *Lingues nationales* 은 통상적으로 ‘국어’로 번역되지만, 문맥상의 이해를 위해 ‘민족 언어’로 번역하였다.

3) Abdou Napon, <La problématique de l'introduction des langues nationales dans l'enseignement primaire au Burkina Faso>, Université de Ouagadougou, *Revue électronique internationale des sciences du langage, Sudlangues*, n° 13-Juin 2010, Dakar, Sénégal.

랑스어에 대한 대체언어로 상정해보는 것이 가능하다해도,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의 경우 수많은 언어 중에서 몇 개의 언어를 선택하는 일은 민족 간의 주도권과 연결되어 갈등을 일으키는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과 아울러, 프랑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정부들이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프랑스어를 공식언어로 인정하기를 포기할 수 없고 프랑코포니 연합을 벗어날 수 없게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옛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이 프랑스어를 교육의 언어이자 행정의 언어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렇듯 프랑스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의 언어로서의 위상이 지속되는 한, 구 프랑스 식민지 아프리카 국가들이 문화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공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인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세네갈에서도 현재까지 프랑스어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언어이자 국가 행정의 언어, 엘리트의 언어이다. 학교에 들어가면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프랑스어로 진행되지만, 실제로 다양한 민족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처음 접하는 프랑스어는 외국어이다. 세네갈의 경우, 약 20개의 아프리카 민족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인구의 절반이 월로프족으로 월로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24%가 뽀(peul), 13% 세레르(le sérère)어, 6%가 만딩그(le mandingue), 5%가 디올라(le diola), 1.4% 소닝케(le soninke)어를 모국어로 사용한다.⁴⁾ 이 여섯 개의 언어는 1968년 법에 의해서 라틴 알파벳으로 기록되기 시작

4) Nicole Franke, *La didactique du français dans les écoles primaires sénégalaises*,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unster, 2002, Munster, p. 3.

했고5), 실제로 세네갈 도시의 일상생활에서는 대체로 이 여섯 개의 언어들 가운데에도 월로프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월로프족은 인구의 절반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월로프어의 파급력은 매우 커서 현재 세네갈인의 80% 이상이 월로프어를 할 줄 알며, 말리와 감비아, 기니 등 인근 국가에서도 세네갈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월로프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6) 모든 일상생활의 대화는 물론, 국회, 행정기관, 법정,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대화를 할 때에도 월로프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7)

사실 세네갈과 같이 월로프어가 전 국민의 80%이상에 의해 통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프랑스어 대신 월로프어를 국가의 공식 언어로 교체하는 정책을 상정해 볼만도 하다. 그러나 마마두 시세 Mamadou Cissé 등 세네갈의 언어사회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네갈 정부는 프랑스어의 특권적 위치에 대해 아직 의문을 제기해 본 적이 없는 듯하다. 실제로, 월로프어를 프랑스어를 대신하는 공식 언어의 위치로 올리려는 정책적 요구가 등장할 때마다 생고르 대통령은 ‘프랑스어를 대신하는 민족 언어’로서의 월로프어를 고려

5) 민족 언어들 표기에 관해서는 1968년 7월 24일의 법에 의해 6개의 언어가 라틴 알파벳으로 표기될 것이 규정되었다. 1985년 법에서는 이 언어들 표기에 관한 맞춤법이 개정되고, 2001년에 이르러서야 모든 코드화된 고유어들에게 민족 언어(국어) langues nationales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법이 통과되었다. Cf. Mamadou Cissé, *Langues, état et société au Sénégal*, Sudlangues, n°5, pp. 99-133, Dakar.

6) "Le Wolof est une langues africaines dont l'expension culturelle est indéniable: elle est et devient chaque jour davantage la langue de communication entre Sénégalais d'ethnies différentes.", Malherbe, M., *Les langues de l'humanité*, 1983, Paris: Seghers, p. 222.

7) 언론과 텔레비전등, 공식 언론은 프랑스어로 기록되어 보급되지만, 텔레비전 토론프로나 방송 진행에서는 월로프어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 않고, 윌로프어가 다른 민족 언어들에 비해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논쟁의 핵심을 돌려왔다는 비난을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세네갈의 초대 대통령이자 네그리튀드 운동을 주도한 시인 생고르는 프랑스어의 열렬한 옹호자였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81년부터 2001년 작고할 때까지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이었으며, 정책적인 차원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을 옹호하고 장려해왔다. 그는 세네갈의 민족언어가 다양하다는 점과 윌로프어의 문법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프랑스어를 옹호해왔으며, 8) ‘프랑스어는 더 이상 세네갈에서 외국어가 아니’라는 낙관적 옹호론을 펼치면서 ‘세네갈의 엘리트는 프랑스어로 생각하고, 프랑스어로 생각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9) 현재 세네갈의 삶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는 모두 민족언어들 특히 윌로프어이며, 가정에서 불어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고르의 프랑스어 낙관론은 미래를 예견하지 못했다.

생고르를 비롯한 정부의 프랑스어 옹호주의에도 불구하고, 1977년 최초로 학교에서 민족 언어를 공식 교육내용에 넣기로 결정하여 1978년 유치원 학급에서부터 실험적으로 윌로프어와 해당 지역의 언어를 교육의 언어로 사용한 적이 있다. 첫 2년간은 민족 언어들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3학년부

8) 생고르 초대 대통령의 프랑스어 옹호에 대한 대표적 발언에는, “윌로프어로 된 국가박사학위 논문이 20여편 나오게되면 학교에서 가르쳐도 좋다”고 하거나 “세네갈의 민주화는 프랑스어로 모든 세네갈인들이 프랑스어 알파벳을 깨우쳐 문맹을 벗어날 때에만 가능하다”고 한 것을 들 수 있다. 생고르의 프랑스어 옹호 발언은 Mamadou Cissé의 논문에서 재인용. Mamadou Cissé, *op.cit.*, p. 105.

9) 생고르가 1964에 한 발언으로 Mamadou Cissé의 논문에서 재인용. Mamadou Cissé, *Ibid.*

터 프랑스어를 구어로만 배우다가, 4학년부터 프랑스어를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프랑스어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적용했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결국 학교에서 민족 언어를 가르치거나, 이 언어로 수업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1980년과 1981년 사이에도 민족언어를 정규 교육과정에 넣으려는 공식적인 시도가 있었다. 몇 개의 시험학급에서, 처음엔 민족언어를 교육 프로그램 과정에 넣어 언어로서 가르치고, 나중에는 이 언어를 매개로 이용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이 시도는 공식적으로 교사들의 교수법 부족의 이유로 실패로 규정된 채 중단되었지만,¹⁰⁾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정부는 프랑스어에 공식어로서의 높은 가치를 계속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민족언어 교육프로그램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고, 언어적 탈식민의 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지역의 부르주아들을 비롯한 세네갈의 엘리트들은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기득권의 진입 장벽을 만들어, 프랑스어 우위 정책이 지속되도록 하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¹¹⁾

현재 세네갈의 공교육 과정에서는, 처음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만(초등학교 준비반) 민족 언어가 사용되는데 대개 일

10) 이 시도에 대해서는 Moussa Daff 의 보고서를 참고할 것, Moussa Daff, *Sénégal : observation du français et des langues nationales*, Univ. Cheik Anta Diop, 1991, p. 142.

11) 세네갈의 프랑스어 교육이 엘리트주의와 어떤 연결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Mamadou Cissé 의 논문이 잘 보여준다. 또한, 이는 20세기 초반의 식민지교육이 엘리트 교육에만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밝힌 Sabatier의 논문을 참고한다. Peggy R. Sabatier, <“Elite” Education in French West Africa: The Era of Limits, 1903-1945>,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frican Historical Studies*, Vol. 11, No. 2 (1978), pp. 247-266.

로프어로 진행된다. 이 역시 다른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에게는 외국어를 통해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이를 시작으로 다른 교과목도 프랑스어로 배우기 시작한다. 프랑스어는 이후에도 줄곧 모든 교육의 언어로 사용된다. 결국, 세네갈에서 프랑스어 교육은 교육 시스템 자체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자, 교육 과정의 주요 수단이며, 이런 현실은 민족 언어를 계속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동시에, 교육의 내용이 구체적인 일상의 현실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2. 세네갈 교과서 프로그램의 문제와 특징

(1) 외국어로서 접하는 프랑스어 교육

앞 장에서 살펴본 세네갈의 언어 상황을 고려하면, 세네갈의 프랑스어 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한 세네갈 어린이들이 처음 읽기 시작하는 교과서인 *Sidi et Rama* 교과서 시리즈¹²⁾의 몇 가지 예를 보면 이런 문제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세네갈의 프랑스어 교수법에 대한 여러 보고서들이 *Sidi et Rama*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수법을 전혀 반영하여 교육하고 있지 않

12)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u Sénég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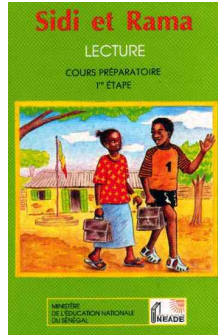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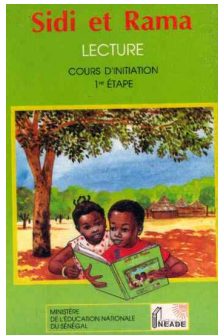
- *Sidi et Rama. Lecture. Cours d'initiation.* Dakar : INEAD, 1990.

- *Sidi et Rama. Lecture. Cours élémentaire, 1ère année, deuxième étape.* Dakar : INEAD, 1991.

- *Sidi et Rama. Lecture. Cours élémentaire, 2ème année, deuxième étape.* Dakar : INEAD, 2000.

는다는 점이다.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기초반 Cours élémentaire 학생들을 위한 CE1, CE2 교과서는 세네갈의 상황에 맞게 텍스트를 만들고, 이미지를 넣어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 장은 삽화가 그려진 한 페이지의 텍스트로 시작되고 있으며, 세네갈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소재로 삼고 있다.



첫 장은 개학(rentrée) 첫 수업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¹³⁾, 아이들이 학급에서 'des éclats de voix'를 만들어낸다는 내용이 첫 단원에 나와 있다. 'des éclats de voix'와 같이 처음 프랑스어를 배우는 어린이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어휘들이, 바로 옆에 있는 페이지에 프랑스어로 설명(les sons de voix qu'on entend quand quelqu'un parle fort)되어 있다. 이런 경우, 교사가 학생들의 모국어인 세네갈 민족 언어로 다시 설명해주지 않는 한, 프랑스어를 매개로 초급 프랑스어 수준의 학생들이 전혀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윌로프어의 사용

13) *Sidi et Rama* CE1, 1991, p. 8.

인구가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화되지 않은 어린이들의 경우는 저마다 다른 민족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세네갈의 어느 저학년 학급에서도 모두 같은 모국어를 구사하는 어린이들이 모인 학급을 찾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증언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복잡한 설명을 요구하는 어려운 프랑스어 어휘를 가르치도록 되어있는 교과서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Sidi et Rama 는 형식적인 면에서도 교과서로 볼 수 없는 부적절한 요소들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타이포그래피가 매우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대소문자를 전혀 통일시키지 않은 점, 문장 부호나 맞춤법에도 오류가 발견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결점은 차치하고라도, 교과서에서 다루는 텍스트의 일상적 상황들이 세네갈의 초등학생들에게 매우 작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도록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세네갈의 일상회화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의 경우, 병원에 가거나 정원을 가꾸는 상황, 타이어가 핑크 난 상황, 수도 다카르를 여행가는 상황 등 아프리카 현실에 맞게 일상적인 상황을 주제로 한 프랑스어 대화 텍스트를 구성하려 했지만, 어린이들이 학교 밖에서는 프랑스어를 거의 사용할 일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랑스어 교과서의 프로그램은 프랑스어가 어린이들에게 외국어로서 습득된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세네갈의 현재 언어 사용 상황에 눈을 감은 채, 프랑스어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언어인 것처럼 교과서가 만들어졌는데, 특히 교과서 안에 사람의 이름으로 매우 프랑스적 인명 고유명사가 예문에 등장할 때, 세네갈의 어린이들은 동물인지 사물인지 질문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교사들의 보고서를 보면¹⁴⁾, 현재의 언어, 사회, 문화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식민지적 잔재의 프로그램이 세네갈 교과서에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어로서 프랑스어를 습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프랑스어를 설명하는 언어조차 모국어가 아니라면, 프랑스어를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기 전에 다른 모든 교과교육이 프랑스어로 진행되는 상황은 기초교육의 실패와 학교 공부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월로프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언어 혼동 현상이 여러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오류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의 사례를 보면 외국어 교육임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세네갈의 프랑스어 교육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¹⁵⁾ 뿐만 아니라, 세네갈 학교 교육의 실패를 고발하는 연구와 자료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정규 공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프랑스어 받아쓰기에서 과반수가 0점을 받았다는 뉴스가 이런 실상을 잘 설명해 준다. 2007년의 경우, 세네갈 정부의 실행 예산(budget de fonctionnement) 40.25%를 교육에 투자했으나, 낙제상의 비율은 7.9%에서 10.9%로 상승했고, 학년을 마친 학생의 비율은 58.4%에 불과했다.¹⁶⁾ 이는 세계적

14) Nicole Franke, *La didactique du français dans les écoles primaires sénégalaises*,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unster, 2002, Munster, p. 18.

15) 월로프어를 프랑스어로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함으로써 생기는 오류의 사례들이 전형적이다.

Tu as une tete dure. (월로프식) => Tu es tetu. 혹은 월로프와 프랑스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데, (실제로 월로프어는 프랑스어의 어휘들이 많이 차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Monsieur, saffa sortir!” (= Monsieur, je veux sortir!)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Nicole Franke, *op.cit.*, p. 10.

16) PDEF(2008), *Papport national sur la situation de l'éducation*, Direction de la Planification et de la Réforme de l'Éducation, Dakar.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국가가 교육 개혁에 들이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책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 근본적 원인으로는 세네갈의 교육이 프랑스어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문제가 근래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 문학교육의 문제

프랑스어 과목은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 과정으로 진입하면서, 언어 학습의 교재로의 역할에서 벗어나, 문학 교육 및 사회와 문화에 대해 의견을 글로 표현하고 토론하도록 하는 교재로서 역할을 한다. 세네갈 교육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프랑스어 교육 프로그램 지침에는 프랑스어 교과를 (1) 텍스트 읽기 (2) 언어 학습 (3) 작문 표현 (4) 이미지 연구라는 네 개의 주요 학습 목표로 분류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중, 다른 학습 활동에 비해 (1)의 텍스트 읽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독해 텍스트의 성격에서부터 다른 여러 학습의 내용이 파생되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읽기 활동을 통해, 본격적인 문학교육이 시작되는 중등교육의 프랑스어 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문학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세네갈의 경우도 문학이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되는데, (1) 민족 언어로 된 전통문학(구전문학), (2) 민족 언어로 기록된 현대 문학, (3) 프랑스어로 기록된 문학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문학은 아프리카의 민족 정체성의 면에서나 국가적 상징성의 측면에서, 공공 교육은 물론 정책적인 면에 있어

서도 동등한 비중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영역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실제 교육에서는 교육의 언어가 프랑스어로 규정된 이상, 프랑스어로 기록된 문학만이 더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인 문맹률이 70%에 이르고, 아동 문맹률이 50%에 이르는 세네갈의 현 상황에서 프랑스어가 엘리트의 언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프랑스어로 기록되는 세네갈 문학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민중문학이라 불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엘리트에 의해 쓰이고 엘리트에 의해 읽히는 제한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 프랑스어 교과에서 중요한 교육의 목표로 자리하고 있는 항목은 언어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아프리카적 가치를 습득’한다는 점이다.¹⁷⁾ 즉, 중등교육과정에서 본격적인 민족 문학 교육이 시작되며, 세네갈과 아프리카, 프랑스어권의 문학을 읽도록 장려한다. 이에 따라, 2010년 중학생 (6e - 3e) 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문학의 비중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7) 세네갈 교육부에서 발표한 중등교육에서 ‘프랑스어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언어능력
2. 의사소통능력
3. 문화적 능력
 - 텍스트의 연구를 통해 언어 습득 강화
 - 아프리카의 가치를 습득
 - 다른 문화를 발견하도록 하는데 도움
 - 생각의 비교와 논쟁을 통해 판단력 형성하고 인격을 형성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u Sénégal, *Nouveaux programmes de français. Enseignement secondaire technique*, édition 2008.

중학생 프랑스어 읽기 프로그램 (중학교, 6e - 3e)¹⁸⁾

<p>Classe de Sixième</p>	<p>1. Le conte 1.1 Oeuvres Intégrales au choix -Bernard Dadié, <i>Le pagne noir</i> -Birago Diop, <i>Les contes d'Amadou Koumba</i> 1.2 Extraits -Oeuvres de la littérature francophone -de textes traduits de langues étrangères</p> <p>2. La poésie 2.1 -Poèmes de Birago Diop, Léopold Sédar Senghor, Guy Tirolien, Victor Hugo 2.2 -<i>Fables</i> de la Fontaine 2.3 -Chansons traditionnelles et modernes</p> <p>3. Autres genres littéraires (extraits) 4. Textes documentaires et écrits fonctionnels</p>
<p>Classe de Cinquième</p>	<p>1. Le théâtre 1.1 Oeuvres Intégrales au choix -Molière, <i>Le malade imaginaire</i> -Marouba Fall, <i>Adja, militante du GRAS</i> 1.2 Extraits de la pièce de théâtre</p> <p>2. L'épopée 2.1 -Djbril Tamir Niane, <i>Soundjata ou épopée mandingue</i> 2.2 -Extraits de récits épiques</p> <p>3. Autres genres littéraires (extraits) 4. Textes documentaires et écrits fonctionnels</p>
<p>Classe de Quatrième</p>	<p>1. La nouvelle et le conte fantastique -<i>Anthologie de la nouvelle sénégalaise</i> -Autres nouvelles francophones ou traduites</p> <p>2. Le roman -Marouba Fall, <i>La Collégienne</i> -Seydou Badian, <i>Sous l'orage</i> -Balzac, <i>Eugénie Grandet</i></p>

18) 세네갈 교육과정의 도표는 2010년 세네갈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Ministère de l'Éducation, Inspection de l'Éducation Nationale, *Le programme de français au cycle moyen (6e-3e)*, 2010, République du Sénégal.

	<p>-Aminata Sow Fall, <i>Douceurs du bercail</i></p> <p>-roman policier, roman de cape et d'épée d'Alexandre Dumas, roman de science-fiction de Jules Verne</p> <p>3. La poésie</p> <p>4. Le fait divers</p>
<p>Classe de Troisième</p>	<p>1. La jeunesse face à son destin: angoisse et espérances</p> <p>-Films de fictions, documentaires, articles de presse</p> <p>2. Le dépassement de soi par l'action, le travail et la créativité</p> <p>-Saint-Exupéry, <i>Vol de nuit</i></p> <p>-Camara Laye, <i>L'enfant noir</i></p> <p>-R.M. du Gard, <i>Les Thibault</i></p> <p>-Henri Lopes, <i>La nouvelle romance</i></p> <p>-Dono Ly Sangharé, <i>Sourd-muet, je demande la parole</i></p> <p>3. Les échanges humains</p> <p>-Mariama Ba, <i>Une si longue lettre</i></p> <p>-Mouloud Ferraoun, <i>Le fils du pauvre</i></p> <p>-Nafissatou Dia Diouf, <i>Reour d'un si long exil</i></p> <p>-Mame Younoussé Dieng, <i>L'ombre en feu</i></p> <p>4. Progrès et mutations du monde moderne</p> <p>-Eve Curie, <i>Madame Curie</i></p> <p>-Jean Rostand, <i>Les hommes de vérité</i></p> <p>-Eza Boto, <i>Ville cruelle</i></p> <p>-Jorge Amado, <i>Bahia de tous les saints</i></p> <p>5. Héritages culturels africains et apports extérieurs</p> <p>-N. T. Niane, <i>Sikasso ou la dernière citadelle</i></p> <p>-L. S. Senghor, <i>Chants d'ombre</i></p> <p>-C. A. Ndao, <i>Le fils de l'Almany</i></p> <p>-Alex Haley, <i>Racines</i></p> <p>-C. Anta Diop, <i>L'Unité culturelle de l'Afrique précoloniale</i></p> <p>-Charles Nokan, <i>Abraha Pokou</i></p> <p>6. Mythologies, Mythes modernes et visions du Futur</p> <p>-Seydou Badian, <i>La mort de Chaka</i></p> <p>-Martin Gray, <i>Je parle aux hommes</i></p> <p>-M. Ndébéka, <i>Soleil neufs</i></p>

중등교육에 진입한 첫 학년이 처음 읽기 시작하는 문학 작품은 코트디부아르의 작가 베르나르 다디에 Bernard Dadié의 *Contes*, 혹은 아마두 쿼바 Amadou Koumba의 *Contes*이다. *Contes*는 아프리카 구술문학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아프리카의 고유한 문화적 상상력을 담고 있는 장르이다. 특히 비라고 디옴 Birago Diop이 1947년 세네갈의 그리오 아마두의 이야기를 프랑스어로 기록한 작품 아마두 쿼바의 *Contes*는, 식민시대에 두 문화 사이에 있던 디옴의 유럽적 지식을 수단으로 아프리카의 문화를 재정립하고 옹호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평가되면서 동시에, 아프리카 구술문학의 기록문학으로 진입을 위한 첫 번째 도전이라 부를 수 있는 작품이다.

라퐁텐, 몰리에르, 발자크, 위고 등의 몇몇 프랑스 문학 작품을 제외하면, 프랑스어 교과에서 다루는 프랑스 문학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텍스트는 세네갈 문학과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문학에 많이 할애되어 있다. 기니의 지브릴 타미르 니안 Djibril Tamir Niane, 말리의 세이두 바디아양 Seydou Badian, 콩고의 앙리 로프 Henri Lopes, 알제리의 몰루 페룬 Mouloud Ferraoun 등, 세네갈 문학에 한정하지 않고, 프랑코포니의 문학으로 확장시켜 아프리카적 가치를 배우도록 유도한다. 특히 중학교 마지막 학년(Troisième)과정에서는 ‘아프리카의 문화유산(Héritages culturels africains)’이라는 주제가 별도의 대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즉, 언어 학습에서 현실과 괴리된 프랑스어 교과는 다시 프랑스어를 통해 프랑코포니의 문화정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마마두 시세는 세네갈이 생고르 대통령에 이어, 프랑코포니 연합(OIF)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압두 디우프 세네갈 전 대통령의 상징적 무게 때문에 세네갈은 여전히 엘리트주의적인 프랑스어

옹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역설한다.¹⁹⁾ 즉, 시세의 입장을 옹호한다면, 세네갈의 문학교육은 세네갈 정부의 ‘프랑코포니’ 중심의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인데, 아프리카의 문화유산은 아프리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민족언어를 통한 문학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코포니’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민족 문학교육 역시 프랑스어의 틀 안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엘리트주의와 프랑스어 옹호주의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 교과는 학습 활동으로 아마두 콤바의 콩트와 같이 그리오의 구술문학을 배우면서 실제로 알고 있는 전통 설화나 구술 문학에 해당되는 신화적 이야기들을 프랑스어로 기록해오는 활동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구술성의 문화를 프랑스어 기록으로 남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의 동질성을 확인하면서 프랑스어를 버리지 않고 아프리카의 가치를 배우도록 하려는 세네갈의 문학 교육 방향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문화유산을 찾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네갈의 문학교육에서는 교과서가 프랑스어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프랑스어로 쓰이지 않은 수많은 민족 문학을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다른 언어의 문학을 프랑스어로 기록해오는 것이 전부이고, 오히려 이런 활동은 문화적, 문학적 다양성을 프랑스어로 단일화 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프랑스어가 논리의 언어이자 지성의 언어이고, 모국어나 민족 언어들은 서민들이 사용하는 일상의 구어 언어로 인식시켜, 오히려 민족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문

19) Mamadou Cissé, *op.cit.*, p. 100.

학과 문화가 형성되는 데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3. 교육과정에서 민족언어의 중요성

이상에서 살펴본 세네갈 교과서 프로그램에 나타난 문제는, 현 세네갈의 교육내용이 언어교육에서나 문학교육에서 아프리카의 문화 다양성과 고유성을 반영하지 못함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전 교과과정을 거쳐 외국어로 배우는 프랑스어가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어 있어, 읽고 쓸 수 있게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한 것은 물론, 학교를 중도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문학 교육에 있어서도 다른 언어로 표현된 다수의 문학을 포기하고 프랑스어 표현 문학만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서, 토고 출신의 활동가 로드리그 크포글리는 프랑코포니가 아프리카의 언어와 문화를 질식시킨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그에 따르면 프랑코포니 연합은 프랑스를 선두로, 서방의 우방국을 주축으로 하는 ‘신식민주의적 연합’에 불과하며, 문화적 측면에서 프랑코포니는 흑아프리카의 일상 언어와 아프리카의 문학을 ‘질식시켜 말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프리카의 꼭두각시 정부들은 타자의 언어인 프랑스어를 능동적으로 진흥시키면서, 정작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는 교통어, 사투리, 방언으로 주변화시키는데 열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⁰⁾

크포글리의 주장은 아프리카 언어를 기반으로 한 ‘아프리카

20) Rodrigue Kpogli, <Francophonie : comment les langues et les cultures africaines sont asphyxiées>, 18 octobre 2008.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의 언어와 문화* (홍미선 편저), 한울, 2009, p. 51-52 에서 재인용.

르네상스를 주장한 쉐이크 안타 디오펠Cheik Anta Diop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안타 디오펠은 “아, 저 친구 프랑스어를 제대로 배웠네(djavaya degi nasarann)” 라는 세네갈 엘리트들의 월로프어 감탄문은 아프리카의 언어와 문학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주장한다.²¹⁾ 프랑스어는 학문 습득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학문이 되어 완벽한 언어구사는 아프리카 문학의 기본조건이 되어버렸고, 집필은 유럽인을 위한 것인 양 아프리카 문학에서는 프랑스어를 통한 주체할 수 없는 현학적 욕구가 다른 무엇보다 많다는 것이다. 외국어인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면 입을 다물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아프리카 문학의 현실이고, 교육의 현실이기도 하다. 결국 아프리카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며, 이런 노력이 교과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민족 언어를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인 듯 보인다.

2001년 1월 7일 개정된 법의 1조에서, 세네갈의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이고, 6개의 민족 언어를 포함하여 모든 국어들이 기록된다고 되어있다. 22조에 따르면, 모든 국가 기관은 국어의 하나씩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국가적 노력에 참여한다고 되어있다. 즉 세네갈 정부는 프랑스어의 공식적 선택을 강화하면서도, 민족 언어를 알파벳으로 표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민족 언어를 초등학교에는 물론 대학에도 공식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시작하려는 듯하다. 특히, 정부가 들이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교육정책이 거듭 실패하자, 실험적으로 프랑스어와 더불어 한 가지 민족 언어를 더 이용해

21) Cheik Anta Diop, *Nations nègres et culture*, 1954, Paris : Présence Africaine,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의 언어와 문화* (홍미선 편저), *op.cit.*, p. 48 에서 재인용.

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했고²²⁾ 그 결과 기존의 프랑스로만 교육하는 학급에 비해, 두 언어 학급에서 실패율이 훨씬 적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2002년 155개였던 시험학급이 2008년에는 465개로 확대되어 진행되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점점 두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다카르는 물론, 생루이와 티에스등 학교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월로프어뿐만 아니라 세레르어, 뿔라어 등 지역 상황에 맞는 민족 언어 하나를 선택해 프랑스어와 함께 사용하며 가르치는 두 언어 병행 교육학교(école bilingue)를 확대하고 있다. 학생들은 해당 지역에서 자신들의 모국어로 가르치는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고, 이들의 학업성취도나 이해도는 프랑스어만 사용하는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문학교과에 있어서도 민족정신과 민족 정체성에 있어서도 월로프어를 비롯한 다른 민족 언어로 쓰이고 있는 현대 문학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아프리카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으며, 현재 대학을 중심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교육 프로그램에 민족 언어를 편입시키는 데에 여전히 매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계속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대학에서 6개의 민족언어 중에 4개의 언어(월로프, 뿔라, 세레르, 디올라)가 선택언어로서 대학에서 교육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고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엔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라

22) 가장 주목할 만한 보고서는 Modou Ndiaye와 Mamadou Diakite (Univ. Cheik anta Diop)의 *Les Langues de scolarisation dans l'enseignement fondamental en Afrique subsaharienne francophone, le cas du Sénégal*, AFD, AUF, MAEE, OIF 공동 지원.

간주하면서 ‘20여개 정도의 윌로프어로 쓰인 국가 박사논문이 나와야만, 공교육에서 윌로프어를 가르치겠다’고 말했지만, 여러 세네갈 대학이 민족 언어와 문학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시작한 만큼, 곧 윌로프어를 비롯한 민족 언어를 통한 공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을 듯하다. 단, 윌로프어를 대부분의 인구가 구사할 수 있다고 해도 윌로프어로 된 문학과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이 언어의 알파벳 표기 방식을 익혀야 한다는 점이 장애로 남는데, 이미 온라인 공간에서는 윌로프어 위키피디아(<http://wo.wikipedia.org>)사이트나 윌로프어 포털사이트(<http://www.xibaaryi.com>)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윌로프어 뉴스는 물론, 논평, 윌로프어를 세계 각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사전, 포럼, 각종 윌로프어 음원자료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세네갈의 인터넷 보급률이 국내와 비교해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인터넷 공간을 통해 활발하게 윌로프어로 쓰인 글이 통용되고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 확대 보급되고 있다는 것은 기록되어 통용되는 민족언어로서 윌로프어의 위치가 앞으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교육 프로그램으로의 편입을 기대해볼 만하다.

결 론

세네갈을 비롯한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 이후 다언어주의(multilinguisme)를 자발적으로 버리고, 시급한 발전논리에 기반을 두어 식민 지배 언어를 격상시켜 신성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카미유 로제 아볼루Camille Roger Abolou가 ‘언어봉

쇄(embargo linguistique)'라고 표현한 바 있는, 아프리카 발전과정에서 토착언어에 대한 배제 및 자발적 사용금지, 아프리카 언어와 문화의 다원적 발전을 모색하는데 근본적인 장애가 되어버렸다.²³⁾ 50년대부터 웨이크 앙타 디옌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문화와 언어를 복원하려는 세네갈 연구자들이 프랑스어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민족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고²⁴⁾, 프랑스어 중심 교육 때문에 아프리카 문화가 자국민에게도 열등하게 인식되며 소외되고 왔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런 주장은 70년대를 뜨겁게 달군 언어정책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져왔으나, 프랑코포니 연합과 끈을 놓을 수 없는 세네갈 정부가 그렇다할 정책적 변화를 이룩하지는 못했다.

셈벤 우스만 Sembene Ousmane의 영화 *Xala* 는 70년대 언어정책과 관련된 논쟁에 중심에 있었던 두 언어의 문제를 아주 잘 보여준다. 인물들은 프랑스어와 월로프어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데, 극적인 순간에 자신을 깊이 이해시키려할 때에는 월로프어를 사용함으로써 프랑스어로 소통할 수 없음에 대한 한계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한다.²⁵⁾ 마찬가지로, 아마두 쿠루마 Amadou Kourouma의 문학 작품이 프랑스어를 의도적으로 왜곡되게 사용하면서도 문학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프랑스어와 혼종적 관계에 있는 민족 언어들을 작품에 사용하여 식민 이후의 현실을 반영하고, 프랑스어 표현

23) Camille Roger Abolou, *Langues africaines et développement*, ed. Paari, Paris : Braza ville, 2008, pp. 26-33,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의 언어와 문화』 (흥미선 편저), *op.cit.*, p. 15-16 에서 재인용.

24) Diop, C.A., *Nations nègres et culture*, Paris : Présence Africaine, 1954.

25) *Xala* 는 셈벤 우스만이 우선 소설로 먼저 발표한 후에 영화화했다. Sembene Ousmane, *Xala*, Présence Africaine, 1973.

문학에서 아프리카적 구어문화 전통을 살려냈다는 점 때문이다.²⁶⁾

세네갈은 다른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와 문화,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월로프어가 대다수의 인구에게 통용되고 있다는 특별한 조건을 갖고 있다. 아프리카의 언어를 바탕으로 한 문화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세네갈의 교육이 직면한 문제는 세네갈 문학과 전통문화를 소외시키지 않고, 공교육이 엘리트 양성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의 문제를 반영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같은 조건에 처한 다른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에게 일어날 변화들의 시작이 될지 모른다.

26) Danièle Latin, *'Oralités africaines et Modernité: stratégie pour la conquête d'un champ symbolique africain de la diversité linguistique dans l'espace littéraire francophone'*, texte du Colloque 'Langues et littératures en Afrique francophone: pour quelles stratégies de cohabitation', Université Gaston Berger de Saint-Louis Sénégal, le 13 juin 2001.

□ 참고문헌

- CISSE Mamadou, *Langues, état et société au Sénégal*, Sudlangues, n°5, pp. 99-133, Dakar.
- CISSE Mamadou, *Ecrits et écriture en Afrique de l'ouest*, Sudlangues, n°6, pp. 63-88, Dakar.
- DENISE Bouche, 'Autrefois, notre pays s'appelait la Gaule...Remarques sur l'adaptation de l'enseignement au Sénégal de 1817 à 1960'. *Cahiers d'études africaines*. Vol. 8 N° 29. p.110-122.
- Diop, C.A., *Nations nègres et culture*, 1954, Paris, Présence Africaine.
- FRANKE Nicole, *La didactique du français dans les écoles primaires sénégalaises*,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unster, 2002, Munster.
- LATIN Danièle, *Oralités africaines et Modernité: stratégie pour la conquête d'un champ symbolique africain de la diversité linguistique dans l'espace littéraire francophone*, texte du Colloque 'Langues et littératures en Afrique francophone: pour quelles stratégies de cohabitation', Université Gaston Berger de Saint-Louis Sénégal, le 13 juin 2001.
- MALHERBE, M., *Les langues de l'humanité*, 1983, Paris, Seghers.
-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u Sénégal
- *Sidi et Rama. Lecture. Cours d'initiation*. Dakar:INEAD, 1990.

- *Sidi et Rama. Lecture. Cours élémentaire, 1ère année, deuxième étape.* Dakar:INEAD, 1991.
- *Sidi et Rama. Lecture. Cours élémentaire, 2ème année, deuxième étape,* Dakar:INEAD, 2000.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u Sénégal, *Nouveaux programmes de français. Enseignement secondaire technique,* édition 2008.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u Sénégal, *Les programmes de français au cycle moyen (6e-3e),* 2010.

NAPON Abdou, *La problématique de l'introduction des langues nationales dans l'enseignement primaire au Burkina Faso,* Université de Ouagadougou, Revue électronique internationale des sciences du langage, Sudlangues, n° 13-Juin 2010, Dakar, Sénégal.

NDIAYE Modou, DIAKITE Mamadou (Univ. Cheik anta Diop), *Les Langues de scolarisation dans l'enseignement fondamental en Afrique subsaharienne francophone, le cas du Sénégal,* AFD, AUF, MAEE, OIF.

SABATIER Peggy R., "Elite" Education in French West Africa: The Era of Limits, 1903-1945',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frican Historical Studies*, Vol. 11, No. 2 (1978), pp. 247-266.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의 언어와 문화』, 홍미선 편저, 한울 2009.

«Résumé»

L'enseignement du français au Sénégal, vue à travers des manuel scolaires

Jiyoung SHIM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Dans cet article, nous avons essayé d'analyser les obstacles et les problèmes de l'éducation sénégalaise dans les disciplines de la langue française et de la littérature de l'expression française à travers l'examen des programmes que proposent les manuels scolaires sénégalais.

L'étude de l'enseignement du français dans l'éducation nationale sénégalaise présuppose des connaissances concernant la situation linguistique générale dans la société et dans le domaine de l'éducation du pays qui a été longtemps influencé par la politique d'assimilation culturelle et linguistique de la France colonisatrice. Nous avons ainsi relevé la particularité de la place qu'occupe l'enseignement

du français au Sénégal : dans un pays multilingue, le français est l'unique langue officielle, celle qui est employée dans l'administration et dans l'enseignement formel. Étant donné que l'accès à l'éducation publique est forcément lié à l'apprentissage du français comme langue étrangère, les difficultés des élèves qui arrivent à l'école possédant les structures linguistiques d'une autre langue (parmi plusieurs langues nationales) sont facilement compréhensibles, notamment par des fautes d'interférence. Considérant cette situation difficile, nous avons ensuite examiné les manuels scolaires du français, où le français qui ne s'utilise guère dans la vie quotidienne sénégalaise, s'apprend à travers les dialogues du quotidien ; le fait que pratiquement aucun enfant sénégalais n'a le français comme langue maternelle n'est pas pris en compte dans les manuels. La situation difficile de l'éducation nationale sénégalaise qui vacille entre l'enseignement d'une langue unificatrice, et celui de l'identité culturelle traditionnelle exprimée par les langues nationales a été examinée par la revue des programmes de l'éducation littéraire de l'expression française proposés pour les élèves du cycle moyen. En guise de la conclusion, nous avons constaté la nécessité d'instituer une autre politique qui puisse prendre en compte la demande des sénégalais en matière du multilinguisme et intégrer la richesse des langues nationales dans le programme de l'éducation nationale sénégalaise.

주제어: 세네갈, 교과서, 프랑스어, 윌로프어, 민족언어, 프랑스어권, 언어정책

Mots-clés: Sénégal, Manuel scolaire, français, wolof, langue nationale, francophonie, politique linguistique

투고일: 2011년 11월 1일

심사일: 2011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2011년 11월 19일